

부로일러 기진맥진

<설문 내용>

1. 병아리 구입방법, 가격, 품종선택, 부화장과의 거래에서 개선할 점은?
2. 과거 정상적일 때와 비교하여 육성기간, 육성율, 사료섭취량, 출하체중, 사료효율, 생산비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3. 사료구입가격과 질에 대한 의견.
4. 지난 7월이후 현재까지 10일간격으로 부로일러 판매가격은? 생산비와 비교하여 수지상태는 어떻습니까?
5. 놀라울 정도로 부로일러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지적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시정방안은?
6. 판매상황(판매처, 가격결정, 판매방법)은?
7. 뉴캐슬의 피해를 본일이 있는지? 또는 이웃 양계장에서 피해를 본일이 있는지?
8. 10월말에 사료가격이 20% 이상 오르리라는 전망입니다. 사료가격이 오르게 되면 부로일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까?

800수에 10만원 적자

박 용 서 <인천 부민단지>

1. 부민단지는 각종 병아리의 전시장으로 국내 유명 품종의 병아리가 전부 다 있다. 병아리 가격은 65원에서 75원까지 있으며 선택에 뚜렷한 기준은 없다. 자기가 길러보고 또는 이웃에서 기르는 것을 보고 선택한다.

2. 육성기간은 72~75일로 과거보다 열흘 이상 늦어지고 있다. 사료효율은 3:1정도 출하체중은 1.6kg, 사료에 kg당 5원 정도의 자체첨가를하므로 사료가격은 kg당 75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므로 kg당 사료비는 222원이 든다(1.6kg×3=4.8kg소비, 4.8kg×75원=360원 360÷1.6=222원).

3. 사료구입은 공장 직거래로 하고 있으며 부로일러 전기 71원(운임포함) 후기 69원에 쓰고 있다. 사료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4. 7월 이후 추석때까지는 300원을 넘어서 가격상으로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뉴캐슬의 피해가 커서 큰 손해를 보았다. 추석 이후에는 가격

이 계속 하락 180원, 200원, 220원, 230원으로 판매, 800수 출하에 100,000원씩 손해를 보아 왔다.

5. 부로일러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추석출하를 목표로 기르던 것이 추석을 그대로 넘겼기 때문이라고 본다.

6. 중간상인들에게 넘기고 있지만 가격은 대부분 중간상인들이 결정한다. 가격을 더 받으려고 하면 다른데서 구입한 제산서를 내보이면서 더 주려고 하지 않는다. 사육자들이 정보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

7. 지난 8월부터 네번이나 발생하였다. 뉴캐슬 백신은 접종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개인적으로 입추를 중단하고 소독하고 해봐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부로일러가격이 워낙 형편없기 때문에 오히려 뉴캐슬이 발병한 쪽이 손해를 적게 보는 경우도 많았다.

8. 사료값은 사료값대로 오를 이유가 있겠지만 사료값 인상에 대하여 이제는 관심조차 없다. 개인적으로 부로일러는 이제 그만둘 생각이다.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다.

직매로 돌파구를 찾아

최 병 관
<대홍양계장> 6,000수

1. 철저한 사양기록을 통하여 병아리품종을 선택하고 있다. 문제라면 수요기에 저질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다. 부화장에서 저질 병아리는 철저히 도태시켜서 내보내야 할 것이다.

2. 육성기간은 과거보다 1주일 이상 늦추어지고 있지만 출하체중은 1.5kg에 미달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사료효율도 2.5에서 3.1:1로 떨어졌다. 나의 경우에는 사료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어분을 따로 첨가하고 있다.

병아리값, 사료비만 계산하더라도 kg당 280원이 들므로 생산비는 300원 가까이 들 것이다.

4. 육계 전기 67원, 후기 65원의 단가로 구입하는데 9월 하순부터 질이 아주 떨어지고 있으

며 폐사율이 높아지고 있다.

4. 나의 경우 8월 27일부터는 출하를 하지 않았으므로 큰 타격을 받지 않은 셈이다. 7월부터 8월 27일까지 300원 이상 받았다. 10월에 출하한 것은 신문에 광고를 내어 직매를 하여 180원 할때 250원, 220원 할때 270원을 받을 수 있었다.

5. 시정방안은 별도 본인의 원고를 참조할 것.

6. 중간상인들에게 팔때마다 시세를 부르게 하여 값이 좋은 곳에 판다. 육계과동 이후에는 직매하고 있다.

7. 뉴캐슬의 피해는 없다. 다른 데서 피해를 본 사례는 많이 알고 있다.

8. 사료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안다. 사료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사료질은 더욱 나빠지고 공급을 제한할 것이다.

오르기는 올라야 하지만 일단 오르고 나면 무료일터 원가는 350원이 되어 무료일터를 더 이상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가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정 영 택
<인천 오뚜기농장>

1. 병아리구입은 정기적으로 우리 농장에 오는 부화장 기술지도원을 통하여 하고 있다. 부화장과 거래에서 문제되는 점은 별로 없다고 본다.

2. 육성기간은 70일 이상, 출하체중 1.6kg, 사료효율 3:1 이상, 수당사료비는 350원, 무료일터 생산원가는 300원으로 보고 있다.

7. 뉴캐슬의 피해가 극심하다. 단지전체가 일시에 2개월 가량 중단하고 소독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

8. 소규모 양계장은 더 이상 사육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료가격이 오른 후에는 무료일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계속하는 사람은 어느정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우리 농장은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놀리기가 아까워 전보다 규모를 줄인 상태로 계속할 생각이다. 정부에서는 사료가격만 올려 줄 것이 아니라 군납, 수출책을 타개하여 주고 가격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생산자가격이 떨어져도 소비자 가격은 변동이 없는 것을 알고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농장 주변 일대는 벌써부터 무료일터 사육을 포기한 양계장이 대부분이다.

9월부터 경영불능 상태

공 완 식
<대구 북구 산격동 1307-23> 7,000수

1. 병아리는 현금으로 구입한다. 전용종도 품종에 따라 70~85원으로 차이가 있다. 일부 부화장은 약추와 불량추를 많이 섞어 내보내는 수

가 있고 분양일자를 잘 지켜주지 않을 때도 많다.

2. 육성기간...제 1 단계로 성장이 부진한 것은 50~55일령에 1.2kg 전후에 출하하고 성장이 양호한 것은 70일령에 1.5kg로 출하하고 있다. 육성율은 95% 정도이나 과거에 비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사료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출하할때까지 수당 4.65kg의 사료를 섭취한다. (사료효율 3.1:1).

사료구입가격은 전기 kg당 74원, 후기 kg당 70.80원.

4. 7월부터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7월 1일	240원/kg
7" 10"	260 "
7" 20"	280 "
7" 30"	315 "
8" 10"	300 "
8" 20"	310 "
9" 1"	300 "
9" 10"	300 "
9" 20"	270 "
9" 30"	220 "

10" 10"	240 "
10" 20"	260 "

9월 하순부터는 경영불능 상태이다.

6. 중간상인에게 판매하고 있다. 중간상인의 가격조작에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실정이다.

7. 뉴젯슬 피해 본일 없음.

8. 사료가격이 인상되면 사육을 중지하는 길만이 살길이다. 자가배합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관계당국에 바라고 싶은 점은 없다. 이때까지의 예로보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즐겁게 닭을 대하는 날이 오기를

이 한 순
<순흥목장 28,000수>

1. 병아리는 자가 부화하여 공급한다.

	과 거	현 재
육성기간	54~60일	70~80일
사료섭취량	3.5kg	4.5kg
육성율	96%	88%
출하체중	1.5~1.8kg	1.3~1.5kg
사료효율	2.33	3.2
사료비	210원/수	315원/수

3. 사료는 자가배합을 하고 있다.

7/10	20일	30일	8/10	20	30	9/10	20	30	10/10
310원	300	315	280	280	250	250	200	180	200

8. 사료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인상되는 만큼 질과 공급량을 철저히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가격만 인상되고 질이나 공급량이나 개선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사양가들에게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축산업은 국가적인 지원과 장려정책으로 육성되어 국민식생활 개선에나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은 실로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1975년까지 축산업에 대하여는 면세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면세기간도 더 연장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 시점에서 일조에 업을 체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다시 1950년대로 후퇴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닭을 대할 수 있도록 퇴기를 기원한다.

중단하는 길이 사는길 ?

매호협업농장
<경산군 고산면 매호동 5,000수>

1. 전용종 가격이 50원까지 내려가고 서로 자기 병아리를 권하기 때문에 요즈음은 앉아서 사는 형편이다. 그러나 병아리 수요가 늘어날때는 불량추는 물론 품종까지도 속는 일이 있다. 정상적인 거래 질서가 요구된다.

2. 육성기간은 70일정도로 과거보다 10일이상

연장되고 있으며 사료효율도 3:1 이상으로 점점 나빠지고 있다.

3. 전기 25kg에 1,700원(kg당 68원) 후기 25kg에 1,625원(kg당 65원)에 구입하고 있지만 짙은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나빠지고 있다.

5. 대구지방 가격하락의 원인은 외부에서 대구로 다량반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8. 사료가격이 인상되면 절망이다. 관계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아쉽지만 기대하기가 어려워므로 당분간 중단하는 길밖에 없다.

생산비 370원

백 승 덕

<백양농장·경북 칠곡군 12,000수>

1. 70~85원으로 병아리를 구입하고 있다.
2. 출하체중 1.3kg 사료효율 3.5 : 1 kg당 사료비 238원, 생산비는 320원.
5. 부로일러가격 하락의 원인을 생산과잉 때문이라고 본다. 축협에 남품하고 있지만 생산비가 비싸기 때문에 적자를 본다 부화장에서 부터 출하량이 조절되어야 한다.

유통기구 개선이 절실할때

김 성 봉

<부산시 동래구 노포동 8,000수>

1. 부화장의 신용단 밀고 주별로 계약하여 구입하고 있지만 차질이 많다. 가격은 현재 수당 50~70원 사이로 거래되고 있다. 부산지방의 경우 외지에서 병아리가 반입되어 금년 상반기는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시세가 폭락하였었다. 부산지방에서는 육계업자 단합대회를 열어 외지 병아리를 배제키로 한 후부터 주로 지방 부화장과 거래 되리라 생각한다.

2. 1,000수 사육한 실례를 비교해 보면

	육성기간	육성율	사료섭취량	출하체중	사료효율	사료비
과거	60일	97%	4,000kg	1,700kg	2.35	(kg당 50원) 200,000원
현재	70일	95%	5,500kg	1,700kg	3.23	(kg당 68원) 374,000원

3. 사료구입가격으로 보아 과거에는 부로일러 전기 kg당 50.40원, 후기 kg당 49.60원으로 구입되었으나 현재는 전기 70원 후기 66.80원으로 구입되고 있지만 사료의 질로볼때 과거보다 40% 이상 인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7. 1	260원	8. 20	310원
7. 10	280원	9. 1	320원
7. 20	300원	9. 10	310원
8. 1	320원	9. 20	280원
8. 10	310원	10. 1	260원
		10. 10	260원

7. 뉴캐슬의 피해가 심하다. 10일령이내에 발병하면 60%, 25일령 이후에 발병하면 30%의 폐사율을 보인다. B₂ 예방약은 접종 하나마나다.

8. 사료가격이 인상되면 부로일러 생산비는 kg당 370원이상 될 것이다. 부로일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kg당 400원은 받아야 하는데 쇠고기 돼지고기가격이 묶여 있는한 닭고기가 400원 받기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사료가격이 오르는 만큼 질이 개선되면 사료효율이 개선되어 생산비를 줄일 수 있겠지만 깊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부로일러를 계속하는 것은 무리이다.

건물 및 기구시설 상각비를 계산하지 않고 300원 이상이면 현상유지가 되지만 300원 이하로 거래되고 있는 지금은 극심한 적자운영이다.

5. 가격하락의 원인은

① 생산과잉

② 부산의 경우 금년 상반기 육계시세의 하락으로 생산조절을 실시하였으나 외부의 닭이 계속 부산으로 반입되어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본다.

③ 특히 부산지방은 부산시 정책이 유통기구를 마비시키고 있다. 위생처리를 한다는 미명아래 도계장에서 억지로 처리케하여 검인을 찍어주고 검인 없는 닭은 판매를 못하게하고 위반자는 식품위생법으로 처벌을 받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으로 부산시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이런것이 완전히 부산의 육계유통시장을 마비시키고 있다.

④ 특히 부화장의 무분별한 병아리 공급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7. 본인은 뉴캐슬 피해를 입은 일이 없다. 집약적으로 밀집된 곳에서, 특히 간이 계사에서 사육하는 업자들이 피해를 보았으며 침입한 곳은 거의 전멸한 것으로 알고 있고 3,000수에서 7,000수까지 피해를 본 양계업자도 있다.

8. 사료가격 인상에 비례해서 닭고기 값도 상승되면 오르더라도 괜찮겠지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책으로는 가격차를 최소로 좁힐 수 있는 유통기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양국은 생산장려책에서 소비를 촉진 시킬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